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이*호
파견국가	Finland	파견도시	Jyvaskyla
파견대학	University of Jyvaskyla	파견기간	2017년 8월 – 2018년 5월
귀국여부	'o//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제가 공부한 도시 Jyvaskyla는 핀란드에서 버스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 입니다. 핀란드 내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으나 핀란드 자체가 인구가 적다 보니 한국 내의 큰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물가도 조금 비싸고요. 하지만 사람 좋고 물 좋은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p>

<p>2017-2학기 2018-1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개인적으로 꽤나 많은 수업을 들었지만 제가 들은 과목들이 스페인어 같은 가셔도 잘 안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기에 전공 기준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p> <p><i>제가 1 년동안 들었던 전공은</i> Strategic Marketing in Retail, introduction to Accounting , Digital Market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and Digital Technology user라는 과목들을 수강한 후에 각각 마케팅 전략론, 소비자행동론, 회계원리, 경영정보론 과목들로 대체 인정받았습니다. 회계원리를 제외한 모든 수업들의 성적이 각각 출석, 개인Report, Team presentation, Team report를 통하여 매겨졌으며 회계원리의 경우는 출석과 시험으로 성적이 매겨졌습니다.</p> <p>사실 교환학생 입장에서야 최종성적 1 점만 받아 학점인정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출석율이 80% 이하면 바로 Fail 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만약 제가 수강한 과목들을 추천하겠냐고 여쭙보신다면 별로 추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Report 일일이 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렇다고 강의가 그렇게 재미있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Pass 만 받아서 학점인정 받는 것, 그리고 열심히 놀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8월 달에 학교 측에서 Summer English course를 진행하는데 참여하시길 권장 합니다. 영어공부도 공부지만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핀란드어를 배울 수 있는 course도 있는데 보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시다면 핀란드어 코스를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말씀 드리면 핀란드어 코스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다는 소리겠지요?) 그리고 Facebook내의 여러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친목을 위한 많은 이벤트들을 진행합니다.정말 수시로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학기 중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도서관 옆에 있는 빌딩 2층의 국제처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환학생 담당 직원분이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실</p>

	<p>것입니다.</p> <p>또한 정식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거의 매주 어느 곳에서든지 파티가 열립니다. 많은 외국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니 파티 좋아하는 친구 빨리 사귀어서 많은 파티에 참가하시길....</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출국 전에 핀란드가 너무 추운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외투 같은 것들 사는 것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8월에 처음으로 도착한 후 바람막이는 겨울이 되기 전까지 정말 거의 항상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얇은 외투들 많이 준비해서 더우면 벗고 좀 춥다 싶으면 바로 꺼내 입고 다녔습니다.(핀란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럽 자체가 겨울 말고는 항상 날씨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겨울에는 주로 롱패딩과 속에다 끼입을 경량 패딩만 입고 다녔습니다. 롱코트도 하나 가져갔는데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클럽 갈 때나 정말 잠깐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등산용신발하고 좋은 워커 꼭 하나씩 가져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겨울에 길이 어는데 정말 미끄럽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 로니만끼 기숙사에 사시게 된다면 아고라 빌딩에 자주 갈 일이 있을 것 같다면 더더욱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한국과는 다른 의미로, 밤에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없어서 안전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자면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너무 피곤해 1시간 이상의 거리를 먼저 혼자 걸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국민성이 좋은 나라의 사람들이라 오히려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조심해서 가라고 걱정도 해줄 정도입니다. 물론 고삐를 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미국과 같은 나라랑 비교 했을 때</p>

	<p>Jyvaskyla는 정말 안전한 나라의 안전한 도시입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Roninmaentie라는 Koas라는 기업이 관리하는 Flat에서 살았습니다. 세탁기 같은 기기들을 Flat내에 갖추고 있기는 하나 모든 빌딩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G빌딩, M빌딩, L빌딩이 각각 1층에 세탁기들과 건조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빌딩에서 만약 사시게 된다면 빨래를 하시고 싶으실 때 밖으로 나와서 위의 세 빌딩 중 가장 근접한 빌딩으로 가야 하니 귀찮으시다면 Flat을 위의 세 빌딩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K빌딩 H빌딩 같은 빌딩들은 1층에 사우나를 갖추고 있습니다.</p> <p>분위기는... 사실 어느 빌딩에 사냐에 따라 그리고 그 학기의 교환학생들의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G빌딩 5층에서 23번방에서 1년동안 방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았었습니다. 저의 방 위층에는 Common room이라고 일종의 모임방 같은 곳이 있었는데 첫 학기때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큰 파티를 열거나 하지는 않고 주로 자기들의 Flat에서 파티를 주최하고는 해서 크게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두번째 학기 때의 친구들이 거의 항상 그곳에서 많이들 크고 작은 파티를 주최 하는 바람에 두번째 학기 때는 소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일 수 있었겠지만 두번째 학기때는 겨울 시즌이라 그런지 학생들 수가 전보다 무척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학기가 적어도 친구들 사귀고 노는데는 더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파티 규모나 스케일 적인 측면에서도 두번째 학기는 너무 끼리끼리 소규모로 논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구요..</p> <p>마지막으로 숙소선택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Flat 신청을 할 때 여러분이 Roninmaentie나 Kortephoja 중에</p>

	<p>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매우 강하므로 만약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010-2071-1294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주로 학식으로 먹었습니다. 저녁은 직접 한국음식을 주로 만들어 먹었고요.. 외국 친구들과 밥을 먹어야 한다던가 요리를 하기 귀찮다 싶을 때는 외식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p> <p>개인적으로 학식은 도서관 내부에 있는 식당이 좋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Agora빌딩에 있는 식당을 좋아했었습니다. 대학 내에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그날의 학식들을 직접 체크 하시어 괜찮은 메뉴가 나오는 식당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식당들간의 거리가 꽤 있어 귀찮을 수 있긴 합니다.)</p> <p>직접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근처의 city center 안에 있는 K-market에서 방문해서 재료를 사서 집에 갔고요. 때로는 한국음식을 위한 재료들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해 택배로 받기도 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Asian market도 하나가 있긴 한데 방문하는 시기에 따라서 김치나 떡 같은 것들을 사지 못할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p> <p>(Asian market 주소 : K-Citymarket Jyväskylä Seppälä)</p> <p>외부 식당의 경우 주로 Pizza buffet이나 sushi buffet에 갔었습니다. 가격이 좀 썩으나.... 핀란드니깐요....그리고 학생의 경우 신분을 증명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학생할인 있냐고 묻는거 잊지 마시구요..(스시 뷔페 주소 : Seppala 4032, 이위베스퀼레 핀란드)</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시내 교통이 사실 한국에 비하면 참 별로입니다. 버스텀도 너무 길고 주말이나 평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첫학기 때는 자전거를 애용했습니다. 겨울에는 시간표 체크 하셔서 부지런을 떠서야 하고요... 버스 카드의 경우에는 City center의 포럼 건물 내에 있는 Information center에서 버스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눈이 오기 전에는 자전거를 애용했지만 어차피 겨울에는 자전거를 탈수 없다 생각하여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요금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p> <p>버스카드 구매 장소 구글맵에 visit jyvaskyla tourist information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p> <p>주요도시 이동은 도시 내에 큰 버스터미널이 있어 Turuku 같은 주요 핀란드 내 관광도시들은 돈이 많이 들어 문제지 방문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티켓구매시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체크를 잘 해보시길 권장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비용 1000유로	<p>출국 : 인천 > 헬싱키 > 이위베스퀼레</p> <p>귀국 : 뒤셀도르프 > 헬싱키 > 인천</p>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해당 사항 없음
보험료	250유로	SIP보험 가입

숙소	230유로 *10개월 > 2300유로	
식비	70유로 *10개월	
교통비	60유로 * 6개월	눈 오기 전까지는 자전거만 사용
책값	90유로	모든 전공 수업은 프린트, 90유로는 스페인어 수업 책값
여행비	700유로 * 6번	한번의 여행당 대략 90만원돈으로 잡아봤습니다. 너무 막연하네요.
합계	대략적인 1년동안의 비용 : 10000유로	정말 잡다한 비용까지 다 더하면 현실적으로 10000유로 보다 더 지출해야만 하는게 맞아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1. 개인적으로 전기장판과 1인용 전기밥솥은 꼭 구매해 오시길 추천 합니다.
숙소가 한국에서처럼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기장판을 사면서 “12월
돼서야 사용하겠지” 생각했는데 11월도 되지 않아 전기장판을 꼭 틀고 자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의 경우 저는 4인용 전기밥솥을
여러분이 앞으로 자주 가시게 될 Prisma라는 곳에서 40유로를 구매했습니다.
간혹 혼자 밥을 해 먹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1인용 전기밥솥을 구매해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 드립니다.
2. 외투 같은 경우.. 여름이어도 날씨가 한국에서처럼 덥지는 않습니다. 간혹
쌀쌀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 바람막이와 같은 외투를 기본으로 여러벌 꼭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하나만 내내 입을 수는 없으니..) 겨울용 외투 같은
경우 롱코트 그리고 롱패딩 하나면 완벽합니다.(외국인들이 롱패딩 보면 간혹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름옷 보다는
겨울옷을 훨씬 많이 가져가셔야 합니다(4월까지도 눈이 옵니다..
정말로요...).하지만 이런 경우 또 한국 귀국 전 장기여행 시 옷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핀란드에서도 여름 옷을 살 수는
있으나 옷들이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가격도 무척 비쌉니다.)
3. 자전거 구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Jyväskylä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착하시게 될 8월에는

English course와 Finninsh course와 같은 교환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맞물려 자전거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품귀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능한
빨리 구매하셔서 저처럼 자전거를 구매하느라 고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구매 장소 : Minna Canthin katu 22 B, 40100 Jyväskylä, 핀란드

하나 더 있는데 Google map에 잡히지가 않네요 Keskussairaalantie
4, 40600 Jyväskylä, 핀란드 > 이 건물이 스포츠학과 건물인데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저는 27살입니다. 제 나이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나이가 교환학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물론 외국 친구들과 사귀면서 영어실력을
기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는 배우기
힘들었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저의 시야를 넓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을 마친 지금 저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조금은 성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외국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을 오는 친구들 자체가 다들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지 본인들도 처음이니깐 어색해서 그럴 뿐인 것이죠. 여기는
유럽이니깐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써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간다면 그 친구들 역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1000%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간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환학생 시절은 끝났지만 저는 해외취업 및
이민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언어적으로나 다른 많은
부분들 적으로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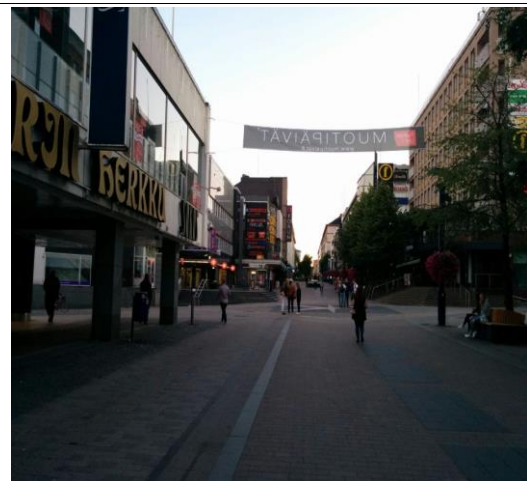
정말 꿈만 같았던 경험이었어요. 이 글을 보고 있을 여러분들도 꼭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p.s: 만약 더 물어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010-2071-1294로 문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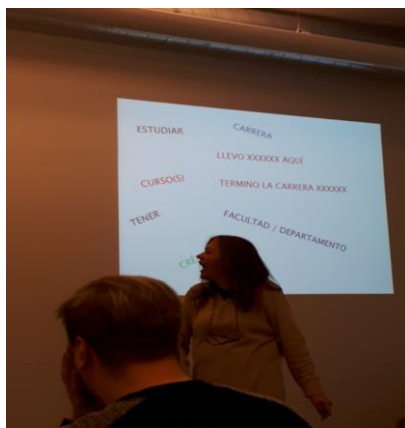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약 1년동안 머물렀던 정든 방



City center



스페인어 수업	Clubbing
	
Happy new year in Berlin	플랫들과의 러시아 여행